

바른사회 Meet Concert 발제 자료
2021.05.20

ESG 거품론 나오는 이유?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Influencer, 김정호의 경제TV

ESG란?

1. Environment 환경 중시
2. Social 사회적 가치 중시
3. Governance 좋은 지배구조

ESG 거품론 요지

-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Investment
- ESG ETF로 투자 급증, 수익률도 높아짐
- 투자자,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 요구: 환경, 빈곤 등 사회 문제 중시
- ESG 중시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것을 기대
- 그러나 지속가능한 현상인지는 의문. 중요한 것은 기업이 ESG와 생산성-수익성 향상을 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ESG 투자가 수익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ESG 열풍은 거품으로 끝날 수 있음

세계 ESG ETF 자금 추이

ESG ETFs: Last AUMs

\$bn

200

150

100

50

0

Jan '14

Jan '15

Jan '16

Jan '17

Jan '18

Jan '19

Jan '20

Dec '20

1890억달러
2020년말

연초 대비
22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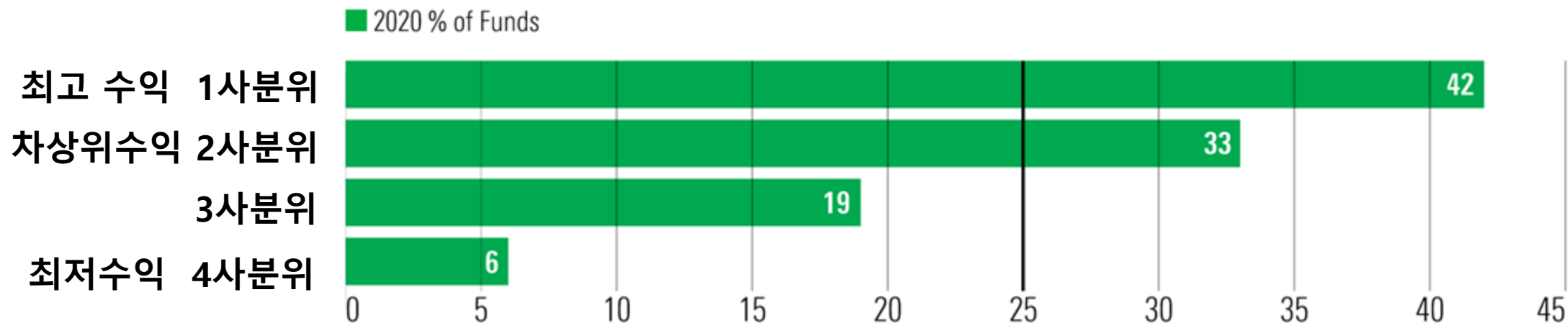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 발발

<https://esgclarityasia.com/esg-etf-assets-surge-220-in-2020/>

코로나 이후 ESG 투자 급증 이유

1. 코로나 → 인류가 환경, 위생, 위험 등에 예민해짐
2. 투자자, 소비자들 ESG 기업 선호, 반ESG 기업 혐오
3.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원금 급증
4. ESG 투자 수익률 상승

ESG ETF 의 수익성 분포



<https://www.morningstar.com/articles/1017056/sustainable-equity-funds-outperform-traditional-peers-in-2020>

ESG 투자 수익률이 높은 3가지 이유 또는 ESG 우수 기업의 주가가 높은 3가지 이유

1. 신재생 에너지 등에 대한 정부 투자 및 지원금 급증
2. 코로나 → Amazon Apple 등 Big Tech 기업 수익 급증, 석유 기업 수익 하락
3. Flow. ESG 중시 분위기 형성 → 추종 매입 → 주가상승 → 투자 수익률 상승 → **거품이 의심되는 경로**

커지는 ESG 거품론 우려

THE WALL STREET JOURNAL.

Green Euphoria May Cost Investors, but Planet Says Thank You

Money pouring into Tesla and its ilk speeds up transition to carbon-free energy



녹색투자, 지구에는 좋아도 투자자는 손해볼 수 있다. WSJ



Dot-com Era Stock Valuations Bring Bubble Fears to ESG Funds

By Ksenia Galouchko and Lucca De Paoli

2021년 1월 26일 오후 2:00 GMT+9 Updated on 2021년 1월 26일 오후 8:46 GMT+9

ESG 펀드, 닷컴 열풍 때 처럼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성. Bloomberg

FINANCIAL TIMES

'Monstrous' run for responsible stocks stokes fears of a bubble

Inflows into ESG funds are driving up stock prices for companies with green credentials

Patrick Temple-West in New York FEBRUARY 21 2020

사회적책임 투자 열풍이 거품에 대한 공포를 부르고 있다. Financial Times

거품이란?

- ✓ 근본가치(이윤) 커질 가능성 낮은 데, 매매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
- ✓ 가격 상승 → 추종 매입 → 가격 더욱 상승 → 근본가치에 대한 의문
→ 가격 하락 → 추종 매각 → 거품 붕괴

의문점?

- ✓ ESG 투자, ESG 경영이 기업의 이윤(근본가치)을 늘릴 수 있나?
- ✓ ESG 투자로 CO2 배출 감소해도 & 세상이 착해져도 해당 기업의 이윤만 높아지는 것 아님. 거의 무관.
- ✓ 지배구조가 좋아진다면? 글썄... 삼성은 ESG 우수기업인가?
- ✓ ESG가 상품 가격 품질 등 개선하지 못해도 소비자가 ESG 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준다면... 투자자는 기업 수익이 별로여도 ESG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투자해 준다면 지속 가능
- ✓ 그러나 소비자, 투자자가 다시 냉정해진다면 거품으로 변할 가능성 높다

ESPRESSO를 만드는 두가지 방법

CSR 인가 CSV인가? 품질, 가격에 어떤 영향?

Environmental Stewardship

- Reduction of Energy and Water consumption.
- Purchase renewable energy.
- Recycling & Reusable Cups.



Ethical Sourcing

- Coffee Purchasing
- Farmer Support Loans

Community

- Community Service.
- Coffee & Tea growing communities.
- Youth Actions Grands.



BooHoo Fashion 스캔들의 교훈? 도대체 뭐가 ESG인가?

Why did so many ESG funds back BooHoo?

High rating given to fast-fashion retailer by MSCI puts sustainable investment scoring systems under scrutiny



Fast fashion: BooHoo, which also owns the PrettyLittleThing brand, has come under scrutiny over its supply chain © James Akena/Reuters

BooHoo drops on factory concerns

Share price (pence)



Source: Refinitiv
© FT

한겨레

첫 단추 잘못 끼운 K-ESG...공신력 실추로 체면 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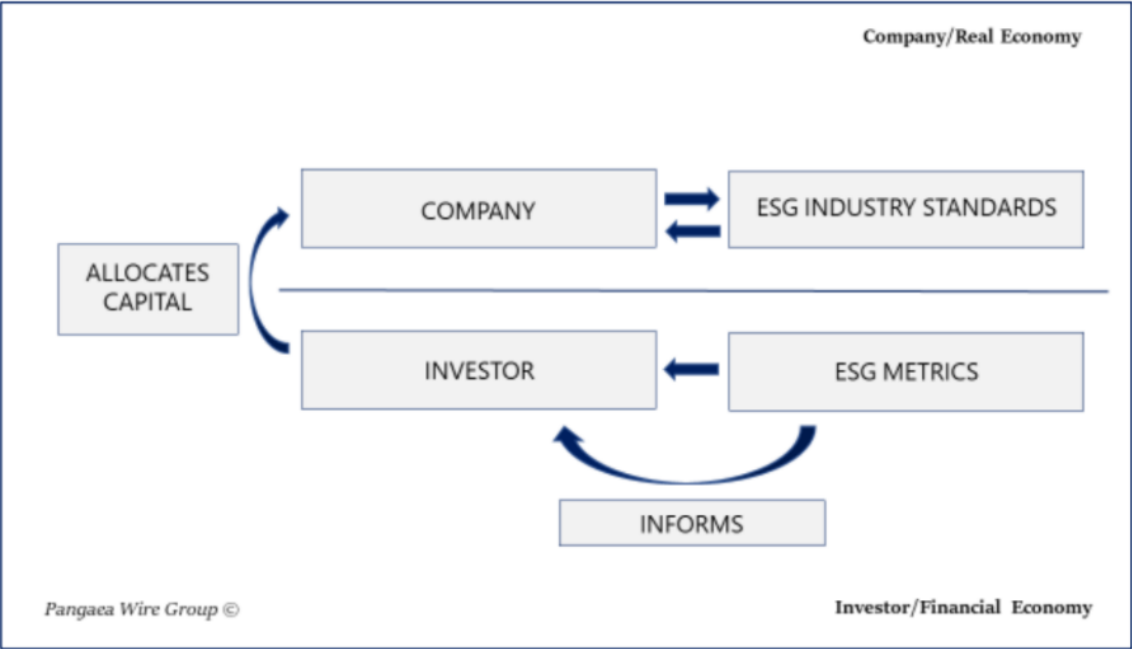


이준재 기자 등록 2021-05-10 13:14
수정 2021-05-10 16:24

산업부 ‘한국형 ESG’ 초안 공개
탄소배출·산재 많은 포스코에 A등급
연간 8천만톤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환경 따지는 ESG 고평가 맞나

미얀마 군부 관련 가스전 사업은
유엔 인권기구에서 중단 촉구

Figure 1. ESG Transmission Framework



위원회는 우후죽순, 평가지표는 혼선...ESG '조급증' 심해졌다

이상은 기자 | selee@chosun.com | 2021.05.18 07:00
Edited by 이도현 차장 | dohyun.lee@chosun.com

국내외 주요 ESG 관련 평가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기업 ESG 평가(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
기업 ESG 평가(해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서스테널리티क्स(Sustainalytics), FTSE포곳(4Good),CDP,ISS,레피니티브 등
ESG채권 인증기관(국내)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거품은 반복된다 → 따라 하다 막차 타면 망한다

